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찬미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정운 : 795-5918)
제 목 지하철안전문제에 대한 시민감사청구
날 짜 1996. 4. 23. (총 3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지하철안전문제에 대한 시민감사청구

청구 일시 : 1996. 4. 22.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는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와 함께 안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감사를 청구했다.
2. 본 감사청구는 최근 지하철의 안전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사고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고,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3. 본 감사 청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최근의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과 조치결과
 2.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새로 인한 사고 건수와 내용
 3. 지하철 공사구간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사고의 위험
 4. 신도림역, 종로3가역, 동작역, 신설동역, 사당역, 시청역 등에 대한 우선 안전진단 후 단계적으로 서울 지하철 전역에 대한 안전진단

■ 별첨자료 ■ 시민감사 청구서 1부

청 구 동 기

1. 1974년 지하 서울역 - 청량리역 구간의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이나 약속시간에 늦지 않고, 버스처럼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현재 하루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지하철이 대중교통 중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가면서 동시에 잦은 사고와 시설의 노후, 공사중 안전진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대형사고와 안전에 대한 불안은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3. 최근에 일어난 몇가지의 사고를 보면
 - ① 동아일보 1991년 12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각종 사고와 낡은 시설로 인하여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12월 한달에만 6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하였으며
 - ② 세계일보 1991년 11월 6일자는 신담 - 신설동 10km 터널벽에 균열이 생겨 열차탈선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방치면 역사도 붕괴위험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③ 1994년 2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동작역에서 승객 오철수씨가 전동차 문에 끼인채 50-60m 끌려가는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④ 1994년 10월 29일 제기동역 구내로 진입하던 인천발 의정부행 전동차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차량 밑에서 연기가 치솟아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 ⑤ 1995년 3월 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공사중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환승역 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 ⑥ 1996년 2월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종로3가역 가스폭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종로 3가역은 1995년에도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그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 ⑦ 지난 3월에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신도림 방면으로 가던 제2122호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차체에서 연기가 발생 출근길 승객 1천여명이 다른 전동차로 옮겨 타는 불편을 겪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4. 위의 열거한 사고외에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발생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대형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5. 지하철은 하루에도 수십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승객의 안전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교통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는 사고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고,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지하철역 전역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른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감사 청구서(제18조의 2관련)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감사실장

청구일자 : 1996년 4월 19일

1. 청 구 단 체	청구단체명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자	김중배 오재식 김창국		
	단체설립목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참여민주주의 실현		
	허가 신고 등록기관	서울시	조직년월일	1994년 9월 10일
	회원의 수	700명		
	연락전화 등	전 화	796-8364	FAX 793-4745
2. 청 구 동 기	별지1 참조			

위 청구자 대표 김중배 (인)